

## 발달장애인 청년과 비장애인 청년이 함께 사회적경제서비스를 체험하다.

충남사회적경제 도민기자단  
이 후 남

(주)라운예술기획이 주관하고 천안시가 후원하는 ‘천안시 사회적경제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위한 프로모션 사업 체험캠프가 지난 11월23일부터 25일까지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에 있는 ‘아우내 심플스테이’에서 진행되었다. 3개의 사회적경제기업(나다운사회적협동조합, 성장협력센터 함께함협동조합, 협동조합 아우내공동체)이 체험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융합하여 제공하며 2박3일간의 캠프를 운영했다.



아우내심플스테이에서 청년들과 함께하는 숲체험

협동조합 아우내공동체는 병천면 은석산 중턱에서 아우내심플스테이를 운영하고 있고, 나다운사회적협동조합은 발달장애인 청년들이 만든 원예키트를 판매하고 있었다. 성장협력센터 함께함협동조합은 발달장애인 청년들과 떡공예, 자수공예, 춤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할 뿐 아니라 대학생들을 SNS시민기자단으로 양성하는 활동도 하고 있었다. 이들 사회적경제기업들의 공동 프로그램은 단체마다의 장점을 융합해서 “가슴을 여는 청년휴가 숲심” 2

박3일 캠프를 기획하여 운영하여 춤명상, 숲명상, 사진명상, 타로명상 프로그램으로 자기 내면과의 만남을 촉진하면서 청년들끼리의 자발적 네트워킹을 시도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발달장애인 청년과 비장애인 청년들이 함께하는 댄싱톡

이번 프로그램에는 행사의 안전한 진행을 위하여 코로나-19 예방접종을 2차까지 완료한 20~34세 발달장애인 청년 4명과 비장애인 청년 6명이 참여했으며, 발달장애인 당사자 가족의 '안심하고 맡길 수 있다'는 동의를 얻어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참가자들의 네트워킹 참여지원을 위해 철저히 준비된 프로그램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청년들끼리의 느슨한 네트워킹 시도로 손인형을 만들면서 자신과 대화하고 글쓰는 명상치유, 가족과 친밀해지기 위한 원예치유, 온몸을 흔드는 동작치유, 자신의 고민을 안전하게 직면하는 타로치유 등 단계별 운영을 통한 체계화된 프로그램으로 진행했다.

**‘부모님들에게는 휴가를’ ‘청년들에게 휴식을’ 주고 싶었어요.**

발달장애인들이 청년으로 성장하면 소속될 곳이 적어서 부모님들은 전전공공한다. 지역사회에서 소외된 채 이 청년들을 서른이 되도록 키워온 가족들이 안심하고 숨 돌릴 틈을 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 프로그램은 시작되었다. 그리고, 비장애인이지만 늘 미숙한 자녀 신세로 살았던 청년들에게 부모님의 걱정 섞인 잔소리를 안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캠프를 공동기획하여 추진했다.



자신과 대화하며 손인형 만들기

본 캠프는 단순 일회성 행사가 아닌 장기적으로 발달장애인 청년들이 자립생활을 준비하는데 힘이 되어 줄 비장애인 청년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의도도 포함하고 있다. “서른 살이 되어가는 이 청년들이 시집가고 장가는 날이 언젠가 될지 모르지만, 요즘은 결혼보다 독립에 치중하는 청년들이 혼자살이를 선호하는 시대니만큼, 이 청년들이 자조적 그룹홈을 또래들과 일귀서 살아가는 게 좋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고, 실험적으로 운영해 볼 기회를 기다려왔습니다. 사회경제서비스 플랫폼 구축 사업이 그 기회가 되어주었습니다.”(성장협력센터함께함협동조합 김난주 이사장)

2박3일간 중년과 노년의 선배들이 체험활동거리를 제공하지만, 참여를 강요하지 않았다. 중도에 포기 하거나 끝까지 하거나 스스로에게 선택권을 주는 캠프를 운영함으로써, 청년들의 자기주도적 태도를 한층 강화할 수 있었다. 숨힘의 힘과 공유의 힘에 우리모두를 내맡기는 시간이었다.

## 사회경제서비스 플랫폼 구축사업의 마중물이 되고 싶은 숨쉼캠프

체험단이 휴가를 누리면서 느낀 바를 SNS에 홍보하는 게 첫 번째 목표인데, 아우내심플스테이는 주말마다 이미 예약이 꽉 찬 상태여서 평일 체험단을 모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평일 수강 일정이 있는 대학생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휴가를 누리고 숨쉼’ 할 환경이 아니라 대학생들은 체험담을 포스팅 하느라 오히려 치열한 일정이었지만 프로그램의 취지와 구성에 호응해주어서 원만하게 프로그램을 진행 할 수 있었다.



발달장애인 청년들이 만든 원예키트를 활용한 리스공예

한편, 발달장애인 청년들은 갑작스러운 폭설과 추위로 몸살을 앓아서, 모든 장소의 난방기를 켜두었는데도 계속 피로를 호소했는데, 부모님들처럼 애정 넘치는 잔소리를 하거나 설득하지 않고 마음대로 지내도록 허용했다. 머리를 안 감기도 하고 오전에 계속 잠을 자느라 정성껏 마련한 식사를 거르는 등으로, 조진경 상임이사(협동조합 아우내공동체 심플스테이)님께 걱정거리가 되고 말았다.

발달장애인 청년들은 앞으로도 스스로 생활을 꾸려나가야 하는데, 그러려면 누군가의 참견이 아닌 자신들의 의지로 일상을 구조화하도록 지지하고자 참견과 접촉을 최소화했다. 이

런 인내심을 발휘해서, 청년들이 친구들과의 좋은 추억을 쌓았다는 평가를 가족들에게 받았다.



고민을 상담하는 타로명상

서비스플랫폼은 제품을 파는 것보다 인간과 인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하기 위한 기회를 확대하는 과정에 가깝다. 발달장애인 청년들이 다듬고 갈무리한 리스 키트를 활용해서 공예를 체험하고 지역사회의 청소년부터 노년까지 협업해서 식사를 제공한다. 이렇게 사회경제 서비스플랫폼은 소외되었던 시민들이 서로를 돌볼 수 있도록 연결하는 다리가 될 것이다.

인터뷰, 사진 제공 : 성장협력센터 함께함협동조합 김난주 이사장